

# 바이든·트럼프 뉴햄프셔 나란히 승리... 리턴매치 '성큼'

### 트럼프, 양자대결서 헤일리 누르고 2연승...대세론 굳히기 나서 바이든, 후보등록도 안한 비공식 경선서 압도적 승리로 '순항'

미국은 물론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11월5일)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2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23일(현지시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 아이오와주에 이어 2연승을 달리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하면서 재선 도전의 첫 발을 내디뎠다.

AP통신은 이날 공화당 경선에서 35%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53.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45.6%를 각각 득표했다고 전하면서 자체 분석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전했다.

CNN, ABC, CBS, NBC 등 다른 미국 언론들도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개표가 진행중인 와중에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한 뒤 경선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고 계속 경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공화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배정된 대

의원 수는 22명으로 전체(2천429명)의 0.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헤일리 양자 구도로 공화당 경선 판이 압축된 뒤 치어 치러진 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후보가 첫 번째 경선인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51% 득표로 승리한 이후, 경선 후보였던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공화당 경선구도는 트럼프 후보와 헤일리 후보간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트럼프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아이오와에 이어 2연승으로 대세론을 더욱 굳히게 됐다.

경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헤일리 후보는 2월 24일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대의원 50명)에서 배수진을 치고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마저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헤일리 후보의 경선 중도하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부터 공화당 경선은 사실상 트럼프 후보의 '1인 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후보는 다만 현재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서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 뒤따를 것으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열린 23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데리의 한 투표소 앞에 눈이 쌓인 추운 날씨에도 많은 유권자가 길게 줄을 서 투표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선거인단 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내달 3일 예정된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첫 공식 경선지로 선정했음에도, '전국 첫 프라이머리 개최'를 주(州)법으로 못 박은 뉴햄프셔주가 이에 반기를 들고 23일 경선

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투표용지에 바이든 이름을 직접 적어넣는 투표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표 초반부터 시종 70% 안팎의 압도적 득표로 1위를 지키며 승리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CNN 방송은 이날 경선 종료 직후 자체 예측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뉴햄프셔 민주당 프라이머리 수기식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승리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양당은 주별로 경선을 마친 뒤 공화당은 7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19~22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후보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로 대세를 굳혀감에 따라 양당은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사실상 두 사람을 각각 지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이·하마스, 한달 휴전과 인질·수감자 교환 원칙적 합의”

### 종전안 견해차에 시행 보류

석 달 넘게 전쟁을 지속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수감자 교환과 연계된 1개월 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이 같은 합의에 근접했으나 가자 지구 내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낼 방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그 시행이 보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하마스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침투해 이스라엘인 1200명 정도를 살해하고 240여명을 근

거지던 가자지구에 인질로 끌고 갔다.

인질 105명은 작년 11월 일시 휴전 때 풀려났고 일부는 숨겨 하마스가 현재 억류한 인질은 130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은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금 진행되는 이 같은 서클외교가 작년 12월 28일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하마스가 애초 최초 휴전 기간을 수개월로 제시했으나 이스라엘이 반대해 30일 정도로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잠정적 합의의 골자는 이스라엘이 교전을 멈추

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면서 가자 지구 원조를 늘리면 그 대가로 하마스가 민간인을 시작으로 군인까지 가자지구에 억류한 인질을 풀어주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한 번에 한단계씩 협상하기를 원하지만 하마스는 초기 휴전으로 인질을 풀어주기 전에 항구적 정전안까지 합의하는 '패키지딜'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 소식통들은 1개월 휴전에 영구적 휴전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마스를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하마스가 2단계 휴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중화권 시가총액, 3년간 '8천조원 증발'

### 당국, 428조원 투입 부양책 검토

중국 증시가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 3년간 중국 본토와 홍콩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6조달러(약 8016조원)에 달한다고 미국 CNN방송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영국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1년 2월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국 증시는 새해 들어서는 증시 폭락 사태 때인 2016년 이후 최악의 스타트를 끊었다.

중국 본토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홍콩 항셱지수는 이달 들어 최근까지 10% 떨어졌고,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도 각각 약 7%와 10% 내려갔다.

항셱지수는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국

대표 주가지수인 CSI300 지수 또한 최근 5년 내 가장 낮았다.

중국 정부가 증시 추세를 되돌린 정도의 경제 부양책을 내놓지 않자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중국인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국이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국유 은행들에 달러화를 팔라고 요구했으며, 증시 부양을 위해 2조3천억위안(약 428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연합뉴스

## 美 대선 'AI 음성 조작' 혼란 현실로

### '바이든 답페이크 음성' 유포 영국·인도 등 의심 사례 속출

“이번 화요일에 투표하지 마세요.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도울 뿐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미국 뉴햄프셔주에서는 마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가짜 전화'가 여기저기로 걸려 왔다.

코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거부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말투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흡사한 이 목소리는 교묘하게 위조된 것으로, 정확한 배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선 레이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블룸버그 통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미 대선을 포함해 올해 세계 각국에서 굵직한 선거가 줄줄이 열리면서 이같이 '오디오 답페이크'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디오 답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로, 문제는 각국에서 선거철을 앞두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

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의 메시지인 것처럼 들리도록 조작된 음성을 퍼뜨려 불법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국, 인도, 나이지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슬로바키아에서 이같이 음성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처럼 음성 조작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영상을 조작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기술적으로도 덜 복잡하며, 추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해 선보인 AI 음성 합성 모델 '발리'(VALL-E)의 경우 3초 길이의 음성 표본만 있으면 해당 목소리를 따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AI 음성 생성 스타트업인 일레븐랩스는 외부에서 투자가 쇠퇴하면서 회사 가치가 11억 달러(1조 5000억원)로 평가됐다고 지난 22일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각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각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각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